

방정환의 어린이관과 도덕교육의 의미*

고시용 · 김은진**

원광대학교 · 경희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방정환의 생애와 어린이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도덕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에 의거한 어린이관에 입각하여 어린이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어린이를 한울님이라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내천의 사도(使徒)라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억압과 고통 속에 처한 어린이를 구원과 해방의 대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어린이중심교육을 전개했다.

방정환의 도덕교육은 어린이운동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도덕성의 의미와 가치를 목적으로 확립하고 현실 속에서 구현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 의미는 “①어린이의 성장 촉진, ②어린이중심교육으로 전환, ③지·덕·미의 전인교육, ④스토리텔링 기반 자기변화”의 네 가지로 드러낼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에 수록된 각종 동화를 비롯하여 『어린이독본』 등은 하나의 체계 속에 도덕이론과 도덕교육이론이 긴밀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된다.

핵심 주제어: 방정환, 어린이, 도덕교육, 천도교, 인내천, 전인교육, 스토리텔링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08).

** 고시용(공동교신저자), 김은진(공동교신저자)

I. 서 언

방정환(小波 方定煥, 1899-1931)은 한국 근대의 인물들 중에서 매우 다양한 수사를 거느린 가장 대중적 인물로 꼽힌다. 예컨대 아동문학의 선구자, 아동문화운동가, 아동교육가, 언론출판인, 천도교 청년운동가, 동화연구가, 민족운동가 등 실로 다양한 수식어가 뒤따른다. 특히 그는 동학·천도교의 “시천주(侍天主)·사인여천(事人如天)·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중심 신교육철학을 강조하고 직접 실천에 옮김으로써 근대이후 우리나라 교육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오천석(天園, 1901-1987)이 듀이(J. Dewey, 1859-1952)의 서양교육론을 들여오기 이전에 어린이중심 신교육철학으로 교육실천을 강조하고 직접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사에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방정환의 생애와 작품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실천적 삶을 살았던 그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밝히는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예컨대 “방정환의 어린이관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인가?”, “방정환의 어린이관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운동으로 일관한 방정환의 생애를 통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어린이관을 재조명하고 그와 연관하여 도덕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도덕교육의 측면에서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물론 방정환이 자신의 어린이관과 교육론을 구체적인 이론으로 제시한 바는 없다. 방정환이 교육실천가로서 중요시한 사상적 근거를 고찰하고 오늘날 어린이교육에 있어서 도덕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어린이문학과 어린이교육 실천가로서의 원동력이 체계적인 사상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도덕교육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밝히는 데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한 연구방법은 방정환이 열정을 들여 발행한 『어린이』의 내용을 비롯해서 각종 집필 문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II. 방정환의 생애와 어린이관

1. 생애

방정환은 1899년 11월 9일 서울 야주개(夜珠峴, 지금의 당주동)에서 아버지 방경수와 어머니 손성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 않으나 어물전과 미곡상을 경영하는 상인 집안이었으며 야주개의 협률사에 있었던 ‘봉상시(奉常寺)’¹⁾

에 물품을 대주었다고 한다. 따라서 비교적 유복한 가정환경 속에서 5세부터 할아버지(방한용)께 천자문과 동몽선습, 소학 등을 배우다가 어느 날 두 살 위의 삼촌이 보성소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워 몰래 따라갔다가 김중환 교장선생님의 눈에 들어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1907년에 봉상시가 폐지된 이후 전황(錢荒)의 실시, 일본 상인의 대거 등장 등과 맞물려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그래서 9세 이후에는 점심도시락을 못 싸가서 변소 뒤에서 눈물짓기가 일쑤였고 심부름으로 쌀 꾸러 다니는 등 고생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²⁾ 10세(1908) 때 총명한 방정환의 재질을 눈여겨보았던 어느 미술가로부터 환등기를 선물로 받고 동네 아이들과 더불어 환등기를 비쳐가면서 변사 흥내를 내고 ‘소년입지회(少年立志會)’³⁾에서 공일마다 토론을 벌이는 등 구변(口辯)과 꿈을 키워갔다. 아울러 그는 그림 그리기에 재능을 보였고 사진 찍기 등이 취미였다.

11세(1909) 때 매동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이듬해 10월 4일 미동보통학교 2학년으로 전학하였다. 졸업 후 가난으로 선린상업학교에 입학했으나 졸업 1년을 앞두고 돈을 벌기 위해 중퇴했다. 총독부 토지조사국의 사자생(寫字生)으로 취직하여 전전하던 중 유광렬과 친구가 되어 민족의식에 눈을 뜨면서 더욱 독서에 매진했다. 그 즈음 방정환의 아버지는 권병덕(淸菴 權秉德 1867-1944)⁴⁾과 의형제로 지내면서 1908년 그를 따라 시천교에 입교했다가 1916년에 천도교로 함께 귀의했다. 그런 인연으로 당시 19세(1917)의 방정환은 권병덕의 천거로 손병희(의암, 1861-1922)의 셋째 딸 손용화와 결혼함으로써 인생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천도교의 사상이 방정환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한 일이다.

결혼 후 그는 지하운동단체인 ‘청년구락부’를 조직하고 기관지 『신청년』을 등사판으로 발행했다. 그리고 보성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하던 중 『독립신문』을 등사하여 1919년 3·1운동을 보도한 혐의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주일간 고초를 당했다. 이후 그의 가족들까지 일본 관헌들의 감시로 시달림을 받자 22세(1920)되던 해 동경 유학

1) 조선시대에 제사(祭祀)와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태조 1년(1392)에 봉상시(奉常寺)를 설치하여 태종 9년(1409)에 전사서(典祀署)로 고쳤다가, 세종 3년(1421)에 다시 봉상시(奉常寺)로 고치고 고종 32년(1895)에 봉상사(奉常司)로 고쳤으며 융희 원년(1907)에 없앴다.

2) 방정환, 『나의 어릴 때 이야기』, 『어린이』 제6권 제2호, 1928년 3월, 38-41쪽 참조.

방정환, 『나의 어렸을 때』, 『어린이』 제6권 제3호, 1928년 5월, 44-46쪽 참조.

3) 일부 연구자들은 10세의 어린 방정환이 ‘소년입지회’를 조직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권병덕이 시천교에서 조직했다는 ‘소년입지회’는 방정환이 조직했다는 ‘소년입지회’와 조직명, 입회자격(13세 이내 아동), 조직의 성격(일주일에 한번씩의 토론 모임), 그리고 조직 시기(1908년)까지 동일하다. 따라서 방정환이 소년입지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했다기보다는 시천교 내의 소년입지회 회원으로 활동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염희경, 『소과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4-25쪽 참조).

4) 권병덕은 보문관 관장으로 인쇄 사무를 총괄한 인물로서 3·1독립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다.

의 길에 오른다.

방정환은 1921년 동경연수영어학교(東京研修英語學校)에 들어갔다가 같은 해 4월 9일 동양대학(東洋大學) 전문학부 문화학과의 보통청강생으로 정식 입학하여 1922년 3월 30일 퇴학했다.⁵⁾ 문화학과의 신설 취지는 “현금의 사상 문제를 논하고 일반 경향이 항상 철저한 근거를 빠뜨리는 아쉬움이 있고, 또 현대 교육상 철학적 상식 보급의 결여에 염려되는 바 있어 문화학과를 창성하여, 철학을 중심으로 문화 및 사회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신문화의 의의를 영득(領得)하려는 것”⁶⁾이었다.

『신여성』 창간 동인(1921년 6월), 『개벽』 동경특과원, ‘천도교 청년회 동경지부’ 회장 등을 겸직하면서 도쿄와 서울을 왕래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방정환은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으면서 당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과 폭넓게 교류했다. 아울러 ‘목성(牧星)’이라는 필명으로 『개벽』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세태 풍자나 소설을 자주 발표했다.⁷⁾

그리고 1921년 5월 1일에 김기전(小春 金起田, 1894-1948?), 이정호(微笑 李定鎬, 1906-1938)와 함께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했다. 발족 당시 회원은 30여명이었으나 그해 10월에는 370명으로 회원이 늘었다.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라는 표어를 걸고,⁸⁾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소년운동을 조직화 체계화시켰다. 아울러 세계명작 중에서 10편을 골라 번안한 『사랑의 선물』⁹⁾이라는 동화집을 출판(1922)하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1923년 3월 16일 ‘색동회’를 창립했고 3월 20일 『어린이』를 창간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경성에 있는 40여 소년단체를 모아 ‘조선소년운동협회’를 조직하고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다. 이후 아동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유학을 중단하고 1923년 11월경 완전히 귀국한 후¹⁰⁾ ‘전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전 조선 140여개의 소년단체를 동

5) 엄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45-46쪽 참조.

6) 나카무라 오사무(仲村修), 『方定煥研究序説-東京時代を中心に』, 『靑丘學術論集』 14집, 1999년 4월, 96쪽.

7) 엄희경, 『소파 방정환과 사회주의』, 『아침햇살』 22호, 2000년 여름호 참조.

8) 이 표어는 후에 ‘착하고, 씩씩하게, 아름답게’로 간결화 되었다.

9) 안데르센(Andersen, H.C.) 『꽃 속의 작은 이』, 그림 형제(Grimm, J. & Grimm, W.) 『잠자는 공주』, 뿔로 『산드룽의 유리구두』, 오스카 와일드(Wilde, O.) 『행복한 왕자』, 데 아미치스(De Amicis, E.) 『난 파선』, 하우트만(Hauptmann, G.) 『한네레의 죽음』 등 10편의 명작동화를 가려 뽑아 번역한 것이다. 원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풍자와 해학 속에서 선량하고 정직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권선징악적 내용을 골랐다. 비록 창작물은 아니었으나 원문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언어의 장벽을 무난히 돌파하였고 구수한 문체가 우리 어린이들의 구미에 잘 맞아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10) 방정환은 일본유학기간(1920.9~1923.11)에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엄희경, 『소파 방정환과 사회주의』, 『아침햇살』, 2000 여름호, 원종찬 『한일 아동문학의 기원과 성격-방정환과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본질』,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 비평사, 2001), 최수일 『1920년대 문학과 『개벽』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 문학의 사상화』, 『상허학보』, 2006.6.) 등 참조.

합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방정환의 도일유학기간(1920.9-1923.11)은 일본에 있어서 ‘다이쇼(大正) 자유교육’이라고 불리는 어린이중심주의 교육이 급성장하는 때였다. 예컨대 개성존중의 교육,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교육, 심정의 교육, 과학적 연구를 기초로 하는 교육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사례들이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방정환이 유학기간을 통해서 어린이중심의 신교육운동이라는 변화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학습하고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천도교의 사상과 혁신적인 교육방법론을 접목시킨 결과, 방정환의 어린이관과 어린이교육론이 틀 잡힐 수 있었던 것이다.

방정환이 『어린이』 1927년 1월호부터 1930년 12월호까지 20회 연재한 『어린이독본』은 일종의 도덕교과서로 실제로 당시의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했다. 방정환은 전면에 나서서 강연회, 동화 구연, 라디오방송, 어린이지 편집, 출판활동 등으로 종횡무진하면서 우리나라 어린이 문화운동을 이끌어갔다. 1931년 7월 23일 가까운 친구들에게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요.”라는 말을 남겼고, 자식들에게는 “공부 잘 해야지.”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운명하였다.

2. 한울님과 천사

어린이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어린이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대상인 어린이에 대한 관점여하에 따라서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이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방정환의 어린이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교육의 혁신적 전환을 추진하게 된 원동력을 파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방정환의 어린이관은 ‘동심천사주의(童心天使主義)’로 대표된다. 아울러 동심천사주의는 그가 몸담았던 천도교의 종지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천도교의 종지는 ‘인내천’이다. 인내천은 동학의 ‘시천주’와 ‘사인여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모든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늘과 같이 대하라”는 인간존엄·인간존중·인간평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연령·신분·계급·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늘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여성해방, 노비해방은 물론이요 아동존중의 실천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¹¹⁾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환희와 행복,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가 어린이다. 어린이의 살림 그것 그대로가 하늘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는 한울의 계시다.¹²⁾

11) 『내수도문(內修道文)』(『천도교경전』, 천도교 중앙총부, 1981, 137-175쪽) 참조.

12) 방정환, 『어린이 찬미』, 『신여성』 제2권 제6호(1924년 6월), 집필일은 1924년 5월 15일로 되어있다

방정환은 『어린이 찬미』에서 어린이를 “더할 수 없는 참됨과 더할 수 없는 착함과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춘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한울님이며 어린이의 마음은 한울님을 가장 가깝게 닮았다고 보았다. “어린이도 한울이다”라는 천도교의 입장이 방정환에 이르러서는 “어린이가 곧 한울이다(童乃天)”라는 주장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이상세계인 한울나라의 성품을 가진 존재이며, 나아가 ‘인내천의 사도(使徒)’라는 관점에서 동심천사주의로 귀결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정환에게 있어서 어린이는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어린이운동은 ‘신앙의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방정환은 『동화를 쓰기 전에 어린이 기르는 부형(父兄)과 교사에게』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이 일을 착수할 때에 더욱 우리 교(敎) 중의 많은 어린 동무를 생각한다. 어여쁜 천사, 인내천의 천사, 이윽고는 새 세상의 천도교의 새 일꾼으로 지상천국의 건설에 종사할 우리 교(敎) 중의 어린 동무로 하여금 애적부터, 시인일적부터, 아직 물욕의 마귀가 되기 전부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찬미하게 하고 싶다. 영원한 천사가 되게 하고 싶다. 늘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이 예술을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련다.”¹³⁾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린이는 “인내천의 천사”로서 “지상천국의 건설에 종사할 천도교의 새 일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천사는 천국에서 인간계에 파견되어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중개를 맡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며,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한다는 사자(使者)도 아니요 단순히 마음씨 곱고 선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도 아니다. 인내천의 사상을 따라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새 세상 천도교의 새 일꾼인 천사를 뜻한다. 이렇게 어린이를 ‘천사’(인내천의 사도)로 보는 방정환의 시각에는 강한 현실 변혁의지가 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방정환 열반 5주기(1936)를 맞아 묘비에 새긴 ‘동심여선(童心如仙)’이라는 글귀 역시 그의 어린이관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¹⁴⁾

3. 구원과 해방의 대상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어린이가 한울이고 천사이며 신선인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호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다. 현실 속의 어린이의

13) 목성, 『동화를 쓰기 전에 어린이 기르는 父兄과 교사에게』, 『천도교회월보』 126호, 1921년 2월, 93쪽.

14) 방정환의 묘비에 ‘동심여선’이라고 쓴 이는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다.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는 일반 민중을 상대로 동학을 포교하면서 자신이 창안한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의 13자 주문만 잘 외우면 누구나 ‘지상신선(地上神仙)’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지상신선’은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도를 깨친 인물이다. 따라서 ‘동심여선’의 ‘선(仙)’은 엄밀한 의미에서 ‘천사’와는 다르지만 방정환이 어린이를 ‘인내천의 사도’로 표현했던 데에는 ‘천사’와 ‘신선’을 비슷한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삶은 매우 암울했고 고통스러웠으며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방정환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냉철한 진단을 통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좁히기 위한 노력과 실천의 필요를 결심한 그는 1921년 도쿄 유학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10편을 번안하여 엮은 것을 『사랑의 선물』¹⁵⁾이라는 제명으로 1922년 7월에 개벽사에서 출판했다. 그 서문에서 방정환은 “학대 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처럼 또 자라는 불쌍한 어린 영(靈)들을 위하여 그윽히 동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을 짜엿습니다”라는 짤막한 말로 『사랑의 선물』을 엮은 의도를 밝히고 있다. 방정환은 당시 어린이들이 억압적 현실 아래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강조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동화집을 출판한 것이다. 1920년대 독서계의 베스트셀러였다.¹⁶⁾

또한 『어린이』의 창간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제일 여러분, 조선에 태어난 소년소녀 여러분을 꼭 가련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못 견뎌니다. ... (중략) ... 짓밟히고 학대받고 쓸쓸스럽게 자라는 어린혼을 구원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들이 약한 힘으로 일으킨 것이 소년운동이요 각지에 선전하고 충동하여 소년회를 일으키고 또 소년문제연구회를 조직하고 한편으로 『어린이』 잡지를 시작한 것이 그 운동을 위하는 몇 가지의 일입니다.¹⁷⁾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방정환의 이상적 관점은 ‘한울’이요 ‘천사’였지만 현실적 관점은 ‘짓밟히고 학대받고 쓸쓸하게 자라는 약자’이며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물론 “돈 없고 세력 없는 탓으로 조선 사람들은 이때까지 내리 눌리고 짓밟히어 아프고 슬픈 생활만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그 쓰라린 생활 속에서도, 또 한층 더 내리눌리고 학대받으면서 무참하게 짓밟혀만 있어 온 참담한 중에 참담한 인생이 우리들 조선의 소년소녀였습니다.”¹⁸⁾라는 표현처럼 당시 조선의 현실에 국한한 관점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이들이 일제강점기라는 환경,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환경, 기성세대로부터 하찮게 대접받는 환경, 즉 “참담한 중에 참담한 인생”이라

15) 『사랑의 선물』에 실린 방정환의 서문이 신유년 말(1921년 12월)에, 김기전의 서문이 임술 원단(1922년 1월)에 쓰인 것으로 보아 1921년 연말에 번안이 이미 완성되었으며 이것을 개벽사에서 1922년 7월 7일자로 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사랑의 선물』 초판본은 미발굴 상태이지만 개벽사의 관관을 인수한 박문서관에서 1928년 11월 5일 11판을 발행한 책이 발굴·소개되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문서관 판에는 목차가 1면, 방정환의 서문이 1면, 김기전의 서문이 3면 정도의 분량으로 실려 있고 10편의 동화가 수록된 본문만 191면에 달한다. 『사랑의 선물』 발행 당시 각종 신문이나 잡에서는 이 책을 ‘100여 페이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박문서관판은 개벽사 판의 편집 체제를 그대로 하여 펴낸 것으로 추정된다.

16) 이기훈,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34쪽.

17) 방정환, 「『어린이』 동모들께」, 『어린이』 제2권 제12호, 1924년 12월, 39쪽.

18) 방정환, 「어린이날」, 『어린이』 제4권 제5호, 1926년 5월, 2쪽.

고 진단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 현실적으로 어린이는 분명 학대받는 존재였다. 한울님을 내재한 어린이는 일제강점기라는 현실과 봉건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이중의 억압을 받는 불쌍하고 참담한 존재이기에 ‘구원의 대상’이 되며 어린이 해방운동을 통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했다.¹⁹⁾

4. 민족의 미래

방정환의 어린이관과 민족관은 서로 결합되는 측면이 있다. 그에게 어린이는 미래의 조선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만들어가야 할 적극적인 주체였다.²⁰⁾ “암울한 현실에서 내일의 희망을 살리는 도리는 내일의 호주, 내일의 조선 일꾼, 소년 소녀들을 잘 키우는 것 밖에 없다.”²¹⁾라고 호소했으며 심지어 “늙은이 중심의 살림을 어린이 중심의 살림으로 고쳐야 새 살림이 온다.”고 역설했다.

“호주를 바꾸어야 한다. 터주를 바꾸어야 한다. 옛날에 터줏대감을 위하여야 잘 산다고 믿고 정성을 바치듯, 어린 사람을 터줏대감으로 믿고 거기다 정성을 바쳐야 새 운수가 온다. 늙은이 중심의 살림을 고쳐서 어린이 중심의 살림으로 만들어야 우리에게도 새 살림이 온다. … (중략) …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여 떠받쳐서만, 그들의 뒤를 따라서서만, 밝은 데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무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²²⁾

우리의 어림[幼]은 크게 자라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입니다. 어른보다 십년, 이십년 새로운 세상을 지어낼 새 밀천을 가졌을망정 결단코 결단코 어른들의 주머니 속 물건만 될 까닭이 없습니다. 이십년 삼십년 낡은 어른의 발밑에 눌러만 있을 까닭이 절대로 없습니다.²³⁾

위의 내용에서 어린이가 지닌 미래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정환은 어린이를 ‘크게 자라날 어림,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으로 규정함으로써 무한한 잠재가능성,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어린이는 크게 성장할 내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조선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정환의 어린이교육 사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 뒤표지에 “씩씩

19) 방정환은 조선의 소년운동을 “어린이사람의 해방운동”이라하면서 “눌리우는 사람의 발밧에 또한 겹눌려온 토전의 어린 민중들이여! 라고 하여 조선의 식민지 상황과 그 상황 하에서 어른들로부터 다시 억압받는 어린이들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정환의 어린이해방운동은 결국 반제반봉건 해방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편집인, 『어린이날』, 『어린이』, 1926. 5, 3쪽.)

20) 이기훈,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27쪽 참조.

21) 방정환, 『어린이』 창간호, 1923년 3월 참조.

22) 『학생』, 제2권 제7호, 1930년 7월.

23) 『어린이』, 제4권 제5호, 1926년 5월, 2쪽.

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하여 서로 도우며 사랑합시다.”라는 천도교 소년회의 표어가 지속적으로 게재한 이유도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에게 거는 희망과 기대를 표현한다.

아울러 방정환이 남긴 여러 작품 가운데 어린이관을 엿볼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일부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방정환의 작품에 나타난 어린이관

어린이관		작품
한울과 천사	한울	『처음에』(『어린이』 제1호, 1923.3) 『어린이 찬미』(『신여성』 제2권 제6호, 1924.6)
	훌륭한 사람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천도교회월보』 제150호, 1923.3)
	착하고 어여쁜 어린이	『마음의 꽃』(『개벽』, 1922.7) 『털보장사』(『개벽』, 1922.11)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천도교회월보』 제150호, 1923.3)
	순수한 어린이	『한네레의 죽음』(『사랑의 선물』, 1922) 『석냥파리 소녀』(『어린이』, 1923.3) 『천사』(『동아일보』, 1923.1.3.)
구원과 해방의 대상	학대 받는 어린이	『석냥파리 소녀』(『어린이』, 1923.3) 『天使』(『동아일보』, 1923.1.3.) 『『어린이』동무들께』(『어린이』 제2권 제12호, 1924.12)
	위압과 강제에 눌려서 인형 제조의 주형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어린이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천도교회월보』 제150호, 1923.3)
	현실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어린이	『만년샤쓰』(『어린이』, 1927.3) 『금시계』(『어린이』, 1929.1-2월호)
	연약한 어린이	『한네레의 죽음』(『사랑의 선물』, 1922) 『석냥파리 소녀』(『어린이』, 1923.3) 『천사』(『동아일보』, 1923.1.3.)
민족의 미래	미래를 책임지는 실천적 담지자 용기 있고 진취적인 어린이 서로 협력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어린이	『동생을 차즈려』(1962) 『칠칠단의 비밀』(1962)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	『어린이날 행사 선전지』(1923.5.1.)

Ⅲ. 도덕교육의 의미

1. 어린이의 성장(聖長) 촉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교육은 지적으로 총명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육성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해왔다. 일반적으로 도덕이론은 “선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째서 가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며, 도덕교육이론은 “선한 사람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라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덕교육은 도덕성, 즉 도덕적인 성격 또는 생활태도를 육성하여 사회의 관습적 규칙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도덕성의 형성과정’ 또는 ‘도덕성의 형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 대한 관심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에 입각한 “어린이가 곧 한울이다”라는 천명은 도덕이론에 해당하고, 방정환의 어린이운동은 도덕교육이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²⁴⁾

천도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존엄하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천도교의 도덕이론에 기반을 둔 방정환의 어린이관에 입각한 도덕교육은 어린이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울의 착한 성품을 그대로 길러주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성장(聖長)²⁵⁾ 촉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방정환이 보기에 “도덕(한울)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도덕적 인간(한울로서의 어린이)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도덕교육의 실천과 연관성을 떠나서 도덕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거나 탐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방정환은 “어린이는 이상세계인 한울나라의 성품을 가진 존재(도덕이론)”이며, 기성세대인 “우리의 할 일은 그 착한 어린이의 성품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또 확충해야 하는 두 가지 일(도덕교육)”이라고 보았다.²⁶⁾ 여기서 방정환은 어린이의 성장발달이 후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정환의 도덕교육은 어린이의 선한 본성과 교육가능성을 인정하는 ‘어린이 성장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방정환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모든 만물이 존엄성을 지닌다는 전제 아래 평등성과 잠

24) 흔히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규범으로서 법이 외적 규제를 가하는 데 비해, 도덕은 내적 규제로 작동한다. 아울러 도덕교육은 도덕성을 기르고 정서를 순화시킴으로써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건전한 인격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도덕과 도덕교육의 의미를 여기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도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로서 종교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 또는 종교적 수양, 만물을 만드는 원리 또는 법칙으로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덕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을 의미한다. 즉 도덕은 천도교의 종지인 인내천과 상통하는 것이며, 도덕교육은 인내천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라고 그 의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5) “한울의 성품을 지닌 그대로 성스럽게 자라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필자의 신조어이다.

26) 방정환, 『어린이』 창간호, 1923년 3월, 1쪽 참조.

재적 가능성을 소유한 존재로서 현실 세계의 모순들을 극복하여 이상 세계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지닌 인간으로 종합해서 말할 수 있다. 또한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 이상세계를 도래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그의 관점에 입각해보면 후천개벽의 인간관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따라서 방정환의 어린이관에 입각한 도덕교육은 한울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서 새 시대와 새 세계를 도래시키는 역사적 인물로 기른다는 의미를 지닌다.

2. 어린이중심교육으로 전환

종래의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도덕이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행위 지침과 그것을 실제로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도덕적 인간은 ‘일상의 규범을 잘 실천한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덕교육은 어른들의 가치관에 입각한 규범과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 등을 미리 정해놓고 어린이들의 마음에 그것을 주입하거나 주형(鑄型)시킴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어린이의 자발성, 자율적인 능력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통적 교육과 신교육의 차이는 교육의 주체가 어른이나 어린이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덕교육은 어른의 관점에 입각하여 설정한 교육목적, 내용, 방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전통적 교육방식이라고 본다. 반면에 신교육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초점이 어린이에게 맞추어지고, 어른의 도움은 어린이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방정환은 전통적 교육을 탈피하고 어린이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1회 어린이날 제정 선전문에는 그가 어린이 중심의 교육을 이루기 위해 어떤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다.

- 一.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禮遇)을 허(許)하게 하라.
- 一.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無償) 또는 유상(有償)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一.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계해(癸亥) 5월 1일 소년운동협회〉²⁷⁾

어른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리라고 하여도 그것이 어린이들의 자유,

27) 『동아일보』, 1923년 5월 1일.

자발성에 배치되거나 그것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도덕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가 처한 도덕적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 조건이란 물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과학적인 탐구정신과 지성적인 방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의 삶을 포함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을 관찰하고 탐구해서 얻은 과학적 사고 방법으로 늘 직면하게 되는 도덕적 상황을 지성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학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방정환의 가장 큰 공헌은 어른중심의 도덕교육을 어린이 중심의 도덕교육으로 전환시킨 방법론에 있다고 봐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도덕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어린이중심교육으로 전환해야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지식껏 이러한 사회를 꾸미고 이러한 도덕을 만들어 가지고 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사색하는 범위와 우리의 가진 지식 정도 이내의 것이지 그 범위 밖을 내어다 볼 수 있다면 거기에는 그보다 다른 방침과 도덕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있을는지도 모를 것이 아닙니까?²⁸⁾

그는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나 지시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개성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요 어린이의 수준에 알맞은 실천조목들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한 방정환의 생각은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부탁하는 ‘어른에게 드리는 글’과 어린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실천조목을 제시한 ‘어린 동무들에게’에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 산보와 원족(遠足)같은 것을 가끔가끔 시켜주십시오.
-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로 늙은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 동무들에게

- 돈은 해와 지는 해를 만드시 보기로 합시다.
-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28) 『천도교회월보』 제150호, 1923년 3월.

- 一.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 一. 길가에서 폐를 지어 놓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 一.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 一.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 一.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²⁹⁾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방정환의 교육방법은 어린이중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생각을 지닌 방정환은 자연스레 어린이본위의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육은 성인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성인본위의 낡고 잘못된 교육을 시행했으며 이제부터는 어린이를 교육주체로 여기고 새 사람에게 걸맞은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어린이본위 교육의 도입을 강조한 것이다. 성인들은 어린이교육에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 주도적 존재는 아니라고 일깨웠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른의 세계와는 다른 별도의 어린이들만의 세계가 있어서 어린이들의 생활은 그 자체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도덕교육 역시 어린이들의 흥미와 필요를 최고의 교육원리로 삼고, 어른중심교육에서 어린이중심교육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의 발달수준에 알맞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3. 지·덕·미의 전인교육

방정환은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어린이가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도덕 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정의적인 교육내용을 강조하였다. 우선 지식중심 교육과 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교육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어린이』를 통해 전달된 지식은 역사, 지리, 산술, 자연, 과학, 상식 등 사실상 아동에게 필요한 모든 교과목의 지식을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역사와 지리 분야의 지식이 강조되었는데, 여기서 다룬 것은 당연히 조선의 역사와 지리였다.

교육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교육대상의 성장발달을 돕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대상의 성장발달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이다. 성장발달을 돕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적·정의적 영역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인교육을 교육내용으로 삼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지적 영역의 측면에 치중해 온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방정환은 당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정의적 영역의 측면에 해당하는 동화, 동요, 미술들을 강조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추구하였다. 전인교육을 위해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29) 『동아일보』, 1923년 5월 1일.

방정환은 지·덕·미의 조화를 강조하고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실천에 옮겼다. 그것은 듀이(J. Dewey, 1859-1952)가 인간의 도덕적 경험을 통합하고 통일시킬 수 있는 원리를 과학과 예술에서 발견하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1920년대 외래의 사조였던 ‘문화주의’가 일본에서 수용·변용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도교가 ‘신문화운동’을 전개한 것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도덕적으로 교육되었다는 것은 도덕적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으며 이것을 행위를 통해 실천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정환은 교육의 정합적인 이론의 논리와 체계화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인간의 풍부한 감성과 감정에서 발견하려고 했다.

그 시대는 비록 근대적 교육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교육내용은 유교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방정환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림, 동요, 동시, 동화 등의 예술을 통해 기쁨, 슬픔, 좌절, 갈등 등의 억압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성교육을 도모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의 것을 보고 그린 것은 아니 됩니다. 아무 것을 그리더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본대로 그린 것이어야 됩니다.”³⁰⁾라는 내용으로 ‘자유화(自由畵) 모집’ 광고를 내고 다음호부터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방정환이 위원으로 활약한 천도교 유소년부의 활동 요항에도 지·덕·미의 조화로운 전인교육을 추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도교 유소년부의 활동 요항

- 一. 소년의 생리적 발육과 심리적 발육을 구속하는 모든 폐해의 교정에 힘쓸 것.
- 一. 재래의 봉건적 윤리의 압박과 군자식 교양의 전형을 버리고 유소년으로의 순결한 정서와 쾌활한 기상의 함양에 힘쓸 것.
- 一. 문자 교양과 평이한 과학 지식의 보급에 힘쓸 것
- 一. 유소년의 조혼(助婚) 급(及) 과로(過勞)를 방지할 것.
- 一. 간단한 사회생활의 훈련을 시(試)하여 유소년으로의 상당 정도에서 자립자율의 정신을 기르게 할 것.
- 一. 동화, 동요, 가극(歌劇), 무도(舞蹈), 경기(競技), 체조, 야유, 등산, 수영 등 유소년 생활에 필요한 소년 예술 급(及) 체육의 보급에 힘쓸 것.³¹⁾

어린이교육은 어린이의 몸과 생각과 기운의 자유로운 성장을 위해 방해물을 제거하여 주고 그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도와 그들의 주장이 세워지고 스스로 그들 자신의 뜻을 굳게 하는 것이었다.³²⁾ 방정환의 교육목적은 빠진 구석이 없이 완전한 좋은 사람 즉, 어린

30) 『어린이』, 1924년 1월, 19쪽.

31) 천도교청년당본부, 『천도교청년당소사(小史)』, 1935, 45-46쪽 참조.

이의 전인적인 성장 밑 발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예술 및 체육과 같은 자기 활동적 학습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방정환의 도덕교육은 지식방면의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감성방면의 교육을 보강하여 조화로운 전인 교육을 추구했다는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4. 스토리텔링 기반 자기변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상대방에게 알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원래 문학이나 영화, 교육학 등에서 활용되던 스토리텔링은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방정환은 예술적 교육이나 정서적인 내용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자칫 도덕교육을 등한시하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방정환은 도덕적 교육 내용을 교과서적으로 직접 다루지 않고 동화나 일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어린이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는 방정환이 남긴 동화의 일관된 특성인 권선징악과 풍자와 해학의 정신에서 엿볼 수 있다. 즉 방정환은 동화나 동요, 동화 구연 속에서 어린이에게 도덕성을 심어 주었으며 더 나아가 올바른 사회개화와 민족개조를 향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련은 1927년 1월호부터 1930년 12월호까지 20회 연재한 방정환의 『어린이독본』에서 잘 나타난다. 『어린이독본』은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교과서로 동화, 위인의 일화, 실화 등으로 꾸며졌으며 실제로 당시 많은 학교들의 조선어시간에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과 한 자(尺) 앞서라	제11과 동정(同情)
제2과 적은 용사	제12과 (검열로 삭제 당함)
제3과 두 가지 마음성	제13과 적은 힘도 합치면
제4과 참된 동정	제14과 싸움의 결과
제5과 (落帙, 자료를 구할 수 없음)	제15과 눈물의 모자 값
제6과 너그러운 마음	제16과 형제
제7과 어린이의 노래 / 뛰어난 신의 ³²⁾	제17과 일기(日記)
제8과 시간 값	제18과 너절한 신사
제9과 세계일가(世界一家)	제19과 동무의 성
제10과 고아형제	제20과 정직

32) 『어린이』, 1923년 3월, 1쪽.

33) 제7과가 1928년 1월호와 1928년 7월호에 두 번 실렸다. 이는 어린이 발행측의 실수인 것 같다.

『어린이독본』은 하나의 체계 속에 도덕이론과 도덕교육이론이 긴밀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족의식과 관련된 주제가 제일 많고(1, 3, 7, 13, 15과), 다음으로 우정, 희생정신, 신의, 동정, 정직 등과 같은 덕목들로 구성되어 있다.³⁴⁾ 『어린이독본』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내용에는 수많은 도덕교육 자료가 들어 있다. 아울러 도덕교육의 주제들을 직접 기계적, 주입식으로 다루지 않고 어린이들이 즐거움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고 읽는 가운데 모르게 저절로 착한 심성이 길러지게 한 것이다. “교훈이나 수양담은 학교에서 많이 듣는 고로 여기서는 그냥 재미있게 하고 놀자. 그러는 동안에, 모르는 동안에 저절로 깨끗하고 착한 마음이 자라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꾸몄습니다.”³⁵⁾라는 『어린이』의 편집후기는 ‘도덕적 인간의 형성과 그 방안’이라는 문제에 대한 방정환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방정환은 도덕교육을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대신에 동화나 일화를 통해 재미있게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어린이에게는 자신들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독자적인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성장력이 있다고 믿은 것이다. 따라서 어른은 입신출세 같은 특별한 용도를 가진 인물형성을 강요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교육내용도 어른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어린이』지의 편집에서도 수신강화(修身講話)나 교훈담 같은 것은 제외한다고 했다. 그런 교훈담, 수신담은 오히려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방정환의 생각은 과도기적인 계몽성을 탈피했다고 할 수 있다.³⁶⁾

이처럼 방정환은 흥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어린이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도덕교육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교육은 어른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흥미 있게 읽고 듣고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배워 자기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동화를 통해서 그러한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방정환은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글에서 잘 알 수 있다.

동화가 가질 요건은 아동에게 유열(愉悅)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마음에 기쁨과 유쾌한 흥을 주는 것이 동화의 생명이라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교육적 가치문제는 셋째 넷째 문제고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의미를 가졌을 뿐이고, 아무 흥미가 없으면 그것은 동화가 아니고, 이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한 교육적 의미가 없어도 동화는 될 수 있지만 아무런 유열도 주지 못하고 동화가 되기 어렵습니다.³⁷⁾

34)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도서출판 학지사, 1999, 42-43쪽 참조.

35) 『남은 잉크』, 『어린이』 제1권 제1호, 1923년 3월, 12쪽.

36) 안경식, 위의 책, 133쪽 참조.

37)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IV. 결 어

지금까지 방정환의 생애와 어린이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도덕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구명하였다. 그는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에 의거한 어린이관에 입각하여 어린이운동을 전개하였다. 한울로서의 어린이는 인내천의 사도로서 아울러 현실적으로 억압과 고통 속에 처한 어린이를 구원과 해방의 대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어린이중심교육을 전개했다.

도덕교육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태도를 육성하여 사회의 관습적 규칙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을 위해 우리들이 기울여야 할 관심과 노력은 도덕을 공부함으로써 한울의 마음을 닦아가고 실생활에서 발현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결국 도덕교육은 심성함양이라는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확립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심성함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방정환의 도덕교육은 어린이운동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도덕성의 의미와 가치를 목적으로 확립하고 현실 속에서 구현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 의미는 “①어린이의 성장 촉진, ②어린이중심교육으로 전환, ③지·덕·미의 전인교육, ④스토리텔링 기반 자기변화”의 네 가지로 드러낼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에 수록된 각종 동화를 비롯하여 『어린이독본』 등은 하나의 체계 속에 도덕이론과 도덕교육이론이 긴밀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된다.

급속한 시대변화에 따라 도덕기준 또한 급변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은 그만큼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따라서 전인적(全人的)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도덕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방정환의 어린이관과 도덕교육에서 시사점을 찾아 구체적인 극복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어린이』지 합본(全10권).

『신여성』.

『천도교회월보』.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 운동과 사상』, 학지사, 1999.

차호일,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 사상』, 이서원, 1997.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인간사랑, 2011.

김은천, 「『어린이』지 게재 전래동화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자영, 「소파 방정환 아동관의 교육적 함의」,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형태, 「『어린이』지에 나타난 방정환의 아동교육사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영애, 「소파 방정환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지영, 「방정환의 ‘천사동심주의’의 본질-잡지 『어린이』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집, 대동문화연구원, 2005.

박찬승, 「1920년대 독일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대사연구』30, 2004.

백혜리,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염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오세란, 「『어린이』지 번역동화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원종찬, 「‘방정환’과 방정환」, 문학과교육연구회, 『문학과 교육』 16호, 2001년 여름호.

이기훈,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 8집, 역사문제연구소, 2002.6.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역사적 의의」,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정혜정, 「방정환의 천도교문화운동」, 『아동문학평론』34, 2009.

조용찬, 「방정환의 인간관과 교육사상」,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차호일,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나까무라 오사무(仲村修), 「方定煥研究序説-東京時代を中心に」, 『靑丘學術論集』 14집, 1999. 4.

《동아일보》, 1925.5.1.

원고접수 : 2013년 12월 7일 / 1차 심사 : 2월 4일 / 게재승인일 : 2월 8일

연구자소개 : 고시용

- ① 전공 : 원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조교수
- ② 관심영역 : 한국종교, 원불교교육학, 원불교경전해석학
- ③ 주요논저 : 「천도교의 신문화운동」, 「원불교 연구의 최근동향과 과제」, 「원불교의 혁신예법과 예전의 사회적 성격」, 「불교정전의 성립과 특징」, 「정전의 결집과 교리의 체계화」, 「원불교대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연구」, 「원불교 설교에 나타난 마음공부」, 「원불교교전에 나타난 교화방법」, 「원불교교리형성과 도교사상」, 「원불교 중립학교의 종교교재」, 「예비전무출신 교육교재 개발」, 「원불교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클릭 원불교』(공저), 『종교(원불교)』(공저), 『한국 종교의 확산전략』(공저), 『원불교 교리 성립사』
- ④ E-mail : kwgksy@wku.ac.kr

연구자소개 : 김은진

- ① 전공 : 교육심리학 / 소속: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 ② 관심영역 : 정서, 부모자녀 관계, 도덕 및 인성교육
 - ③ 주요논저 : 「청소년의 분노와 자기개념 명확성,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 탐구」, 「정서조절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상황의 정서 연구」, 「학습상황의 정서조절 척도 개발 연구」
 - ④ E-mail : ejkim2367@gmail.com
-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Pang Chŏng-hwan's Moral Education and View of Children

Ko, Shiyong · Kim, Eunjin

Wonkwang University ·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Pang Chŏng-hwan's (1899-1931) life and his view of children and also focuses on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moral education. Pang based his view of children on Ch'ŏndogyo's notion of Innaech'ŏn (Man is Heaven, 人乃天) and actively spread the children's movement. Not only did he regard children as extensions of Hanullim (Master Heaven), but he also stipulated that they were disciples of Innaech'ŏn. In addition, not only did he see the grim reality that children needed to be liberated and rescued from suffering and oppression, but also emphasized hope for the future of his people by spreading an autonomous children-oriented education in Korea.

Pang Chŏng-hwan's moral education establishes as its goal actualizing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morality through the concrete application of children's movements. That significance can be expressed as follows: 1. Promoting children's development, 2. Switching to children-oriented education, 3. Holistic education(全人教育) comprised of knowledge, virtue, and body, and 4. A storytelling framework for self-transformation. Moreover, various fairytales contained in the magazine Children including the "Children Reading Book" is highly appraised for its exemplification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oral education theory and moral theory in one system.

Key words : Pang Chŏng-hwan, children, moral education, Ch'ŏndogyo, holistic education, storytelling